

‘루저(Loser)사건’은 핑계와 비난을 일삼는 우리사회의 단면



김성혜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2기)

지난 11월 9일 KBS2에서 ‘미수다’ 방영 이후로 일명 ‘루저사건’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사건은 ‘미수다’에 출연한 여대생 한명이 남자는 키가 180이하는 모두 루저(loser)라는 표현을 한 데서 시작되었다. 남자를 다른 조건이 아닌, 선천적인 부분인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여대생에 대해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은 흥분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누구는 개념이 없는, 그리고 대본을 그대로 읽는 무식한 여대생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또 누구는 시청률에 급급한 작가와 PD의 잘못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소수의 누군가는 네티즌들에게 너무 흥분한 거 아니냐며, 여대생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또 다시 온라인에 의해 매장되는 희생자를 만들지 말자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은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분치 못한 여대생이나 사회의 요구를 잘못 파악한 작가 혹은 PD의 잘못일까, 아니면 괜한 것에 흥분한 네티즌의 잘못일까. 그에 대한 답으로 나는 당연히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답하고 싶다.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타인을 비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변명하

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루저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루저 발언을 한 여대생은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면서 자신은 작가들이 써준 대본에 의지하여 방송을 했을 뿐이라며 제작진에게 책임을 넘겼다. 두 번째로 제작진들은 ‘미수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미수다’는 통상 녹화 이전에 모든 출연자들과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해 토론할 주제에 대한 출연자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대본화 하고 있고 대본은 토론 진행상 참고 자료로 쓰일 뿐,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시금 그 책임을 전가했다. 게다가 자신들은 신세대의 의견을 듣고 싶었을 뿐이며, 솔직하게 의견을 말한 여대생에 대한 심한 비난을 자제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 말은 여대생에게 그 책임을 묻고 비난을 내포하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여성 네티즌들은 사적인 모임에서는 남자의 키나 다른 조건들에 대해 서슴없이 논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의 한 여대생의 잘못으로 남자들이 분노하자 자신들은 그런 여자가 아닌 척, 함께 비난을 일삼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크게 확대시키는 데 주력한 남성 네티즌들은 가



장 큰 희생양이 된 듯한 모습으로 '루저사건'을 비췄었다. 그러나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판단 받는 것으로 희생양이 되어 온 것은 여자들이었다. 여자는 겉모습은 물론이고 성(性)적인 것들 까지도 개그소재로 삼아져 희생되었으며, 못생긴 여자는 서슴없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소위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흐름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남성들의 각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국 남성 네티즌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회적 흐름을 덮어 버린 채, 남자의 키에 대한 발언 하나로 모든 비난을 여대생에게 돌림으로서 자신들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변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분석할 수 있다.

모두가 자신이 가장 큰 희생양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핑계를 돌린다.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세워지는 것에 우리 사회는 익숙해져 있다. 어쩌면 이러한 방법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현명해 보이고 자신이 높아지는 지름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자기방어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에는 자신이 핑계 돌린 것과 남을 비난한 것으로 판단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의가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등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신다고(롬1:28-30) 말씀하고 계신다. 그

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치 못하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자신이 판단 받게 됨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하지 못한 것을(롬2:1-3, 롬14:10-12)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무에게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높아지려 하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시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마7:1-5, 눅6:37-38, 41-42).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고 비난하는 행위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한 데서 오는 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이 아닌 겸손으로 높아지셨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빌2:3)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잘못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 받고 높임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5:6)’